

제목: "침몰의 시작"

말씀: 사사기 2장 6-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아켜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 1) 하나님을 _____하지 않았습니다.
- 2) 걱정하고 붙어 있는 자들에 _____을 받습니다.
- 3) 하나님을 모르는 _____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지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지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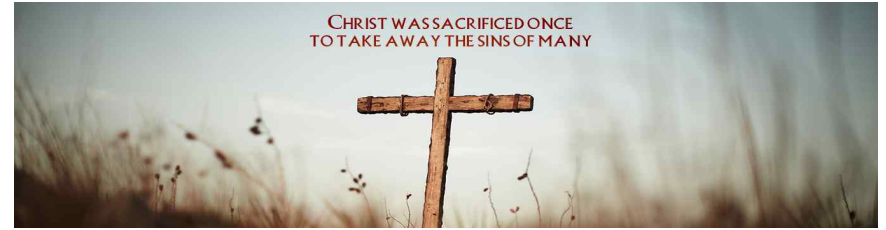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사사기 2장 6-15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Judges 2: 6-15 구약 362 페이지 President
- 말씀 "침몰의 시작"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beginning of the end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원로 목사님)

수 년 전 90년대 초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며 사역 할 때에 섬기던 교회에 담임목사님께서 방문하셨다. 한국에서 만나 빈 지 7-8년 만에 만남이었다. 그 당시 80이 가까운 목사님이신데 7-8년 만인데도 8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였다. 8년을 배우고 섬겼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나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셨다. 그날 목사님은 한국에서의 사역과 미국에서의 사역들 그리고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던 그 목사님의 과거 간증들을 들려주셨는데 시간가는 줄 모르게 듣고 나누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는 아무래도 목회에 관한 이야기였다.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미국에 오셔서 3곳의 교회를 섬기시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나가서 신학교 총장을 몇 차례 하시면서 그 가운데 나온 간증들이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과거에 하셨던 설교 테이프들을 얼마 전에 몽땅 버리셨다는 것이다. 과거에 했던 설교들을 통하여 그 당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겠지만 80이 가까운 지금 그 설교들을 다시 들어보니 도저히 낮이 뜨거워서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선두에 가시던 분이신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살았는지 부끄럽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빠진 설교와 목회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성도들의 귀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셨다. 목사는 군림을 하고 교회는 사업이 되며 성도는 예식에 빠져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먼 후배인 나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 보라는 말씀을 해 주고 가셨다.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는지 모른다. 그리고 한 편으로는 그분의 깨달음이 부럽기까지 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한 질문이 “과연 나는 예수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목회에 빠져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예수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종교 혹은 예식에 빠져 있는가?” 10년 후 지금을 돌아 볼 때 후회 없는 믿음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태복음 24장 37절)라고 하셨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갔는가하는 것이다.

그 때가 곧 임한다고 하셨다. 지진이 잦을 때에 큰 지진을 대비하는 것 같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마지막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후회하지 않을 믿음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지 않을까?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김예식 성도의 회복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5월 30일 모든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5월 중에는 새벽기도회 후에 친교가 없습니다.

4. 8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8월호를 받아 가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